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부원장 김송이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최혜영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Vice Director : Song Yee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Hye Yeong Choi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72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mothers with high-emotionality children reported higher parenting stress than ones with low-emotionality children. The mothers reported low-supporting by their husbands perceived higher parenting stress and used less warmth-encouragement than mothers reported high-supporting. The setting limit behaviors in parenting was significant different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That is, only in the group of high-emotionality children, the mothers with high-supporting by their husbands used more setting limit

behaviors than the ones with low-supporting. The children with mothers received low-supporting by their husbands were rated as less prosocial by their teachers than the children with mothers received high-supporting.

주제어(Key Words): 정서성(emotionality),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해 간다. 그 중에서도 유아에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회화를 시켜 주는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유아가 가지고 있는 개인 특성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중에서도 유아의 기질 특성은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양육 실제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기질 특성 중에서도 생리적 기능이 불규칙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부정적 기분을 강하게 표현하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쉬운 기질의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Teti & Gelfand, 1991). 이러한 까다로운 기질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가 정서성(emotionality)으로, 정서성이란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 강도에서의 특별한 개인차로, 정서 반응의 강렬한 수준에 대한 역치의 개인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2).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등 부모 역할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박응임, 1998; Abidin, 1990).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다. 자녀의 존재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머니가 개인 생활의 자유와 자아실현의 기회에 제약을 받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자녀가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다루기 어려운 행동들을 한다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스트레스 인자가 되고 어머니로서의 모성 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여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해미, 1994). 나아가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뿐 아니라 부모-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양육하기 까다로운 특성의 유아를 둔 어머니가 자녀와 항상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에서

어머니가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지원이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게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박지원, 1989). 까다로운 기질, 즉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은 유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유아를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Belsky, 1984). 서혜영(1991)은 사회적 지원은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며, 정보나 충고 및 양육을 위한 도구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Riccituti와 Dorman(1983)은 유아의 기질이 순하고 까다로운 것이 양육행동을 결정하기보다는 어머니의 개인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원들 때문에 유아의 기질 특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이수미, 2006, 재인용).

사회적 지원 중에서 특히 남편의 지원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있어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는 다른 사람의 지지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적응과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Unger & Wandersman, 1988).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더 합리적, 애정적, 성취 지향적으로 양육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며, 권위주의적인 통제는 적게 보이는 등 자녀와 더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문혁준, 2001). 또한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에 만족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수록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민감하였다(Lewis, Owen, & Cox, 1988). 반면 부부가 자녀양육에 있어 갈등이 많고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부정적이었고(Goldberg, 1990), 자녀와의 상호작용도 덜 긍정적이었으며,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80). 이는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양육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구조가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여겨져 왔던 인식이 점차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은 변화한 반면, 실제로 아버지들은 바쁜 직장일과 사회활동 등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기질적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일이 많으므로 양육스트레스도 높다고 하겠다(신숙재, 1997). 유아의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 관계에서 남편의 지지가 이를 완충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하나인 정서성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Rubin, Hymel, Mills, & Rose-Krasnor, 1991), 학령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구인으로 알려져 있다(Eisenberg, Guthrie, Fabes, Reiser, Murphy, Holgren, Maszk, & Losoya, 1997).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들은 좌절하기 쉽고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등 만족 지연이 어렵고, 정서 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더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많이 하는 등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사회적 유능성과도 관련된다(권연희, 박경자, 2003; Eisenberg & Fabes, 1992; Rubin et al., 1991). 권연희와 박경자(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적 특성을 가진 유아, 특히 정서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서성이 높은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부부 중심의 가족 구조 안에서 갖는 남편의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유아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정도에 따라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유아를 긍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성과 남

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두 곳의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유아 43명(남아 22명, 여아 21명)과 4세 유아 85명(남아 45명, 여아 40명), 총 128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관한 질문지를 통해서 총 72명의 유아(남아 38명, 여아 34명/ 3세 25명, 4세 47명)와 그들의 어머니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을 3, 4세로 정한 것은 자녀가 어릴수록 기질적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일이 많으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선행 연구(신숙재, 1997)에 기초하였다.

분석 대상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정서성 점수($M=3.1, SD=.6$, 범위=1.4~4.6)를 기초로 상위 33%¹⁾(3.40점 이상)와 하위 33% 집단(2.80점 이하)을 구분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점수($M=3.7, SD=.7$, 범위=1.0~4.8)를 기초로 상위 33%(4.08점 이상), 하위 33% 집단(3.41점 이하)을 선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유아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모두가 상위인 집단, 유아의 정서성은 상위 집단이고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는 하위 집단, 유아의 정서성과 남편의 역할 지지 모두가 하위인 집단, 유아의 정서성은 하위이고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는 상위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별 분포 및 사례 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 어머니 및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

<표 1> 집단별 분포 및 사례수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 정서성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전 체
상위 집단	13	22	35
하위 집단	24	13	37
전 체	37	35	72

¹⁾ 상위 33%, 하위 33%를 기준으로 집단을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점수 분포에서 동점자 처리로 인해서 35%까지 포함되었음.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72)

범 주		어머니 빈 도 (%)	아버지 빈 도 (%)
연 령	20~29세	4 (5.6)	0 (0.0)
	30~39세	59 (81.9)	53 (73.6)
	40세 이상	8 (11.1)	18 (25.0)
	무응답	1 (1.4)	1 (1.4)
학 력	고졸	13 (18.1)	5 (6.9)
	전문대졸	15 (20.8)	5 (6.9)
	대졸	34 (47.2)	48 (66.7)
	대학원졸	7 (9.7)	11 (15.3)
	무응답	3 (4.2)	3 (4.2)
직 업	전업주부(비취업)	43 (59.7)	0 (0.0)
	판매·서비스직	7 (9.7)	13 (18.1)
	사무직	7 (9.7)	27 (37.5)
	관리직	1 (1.4)	8 (11.1)
	전문직	9 (12.5)	19 (26.4)
	무응답	5 (6.9)	5 (6.9)

와 같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30대가 81.9%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7세로 30대가 7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대졸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문대졸(20.8%)이었고, 아버지는 대졸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원졸(15.3%)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59.7%)가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37.5%)이 가장 많았다.

2. 연구 도구

1) 유아의 정서성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uss와 Plomin(1984)의 부모용 유아기질평정척도(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EAS) 중 정서성 부분을 사용하였다.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울거나 짜증 부리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등 정서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서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65였다.

2)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bidin(1988)의 양육협력도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하위 척도 중 신속재(1997)가 번안, 수정한 협력

(Teamwork)에 관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남편이 부모로서 잘 도와준다고 부인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우리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약 별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우리 부부는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문항을 삭제한 후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2였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부모영역, 9문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 10문항)',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유아 영역, 10문항)'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하위 영역별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의 스트레스'는 역기능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야기하는 부모 개인의 적응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우울감, 역할 제한,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성이 포함된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유아 수용, 부모에 대한 유아의 강화작용, 유아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그 세부 내용으로 한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부모가 다루기 힘든 유아의 행동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함으로써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알려주는 것으로, 유아의 적응, 요구, 기분, 활동 정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PSI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73,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80,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77이었으며, 전체는 .85였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주희(2001)

의 양육행동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로, 온정/격려(11문항), 한계 설정(8문항), 과보호/허용(7문항), 거부/방임(8문항)의 4개 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의 연령은 3, 4세이므로 어린 유아의 생활에 적합한 예들을 첨가하여 문항 서술을 수정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자료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문항(6, 10, 30, 34번)의 요인 부하량이 낮아서 제외하고,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9문항)'는 유아에 대한 수용, 애정 표현, 필요한 도움 제공,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한계 설정(8문항)'은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며,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과보호/허용(7문항)'은 유아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유아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부재를 나타내는 양육행동을 의미하고, '거부/방임(6문항)'은 유아를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 화를 내거나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행동, 유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하위 영역별로 온정/격려가 .81, 한계 설정이 .76, 과보호/허용이 .70, 거부/방임이 .71로 나타났다.

5)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aFreniere와 Dumas(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SCBE)'의 간편형을 권연희와 박경자(2003)가 번역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친사회적 행동(10문항), 불안-위축된 행동(10문항), 분노-공격적 행동(10문항)의 세 하위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유아의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까지의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교사가 평가한 것을 의미하고, 불안-위축된 행동과 분노-공격적 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위축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교사가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불안-위축된 행동은 .84, 분노-공격적 행동은 .88,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90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가족학 분야의 전문가 3인이 도구들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후 문항 서술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또한

수정한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의 유아 교육기관 만 3, 4세 유아 14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2005년 10월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부모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6월과 7월에 걸쳐서 경기도에 위치한 두 곳의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만 3, 4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총점이 2.38로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을 하면서 보통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그 결과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아의 정서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_{(1,68)}=26.7, p<.001; F_{(1,68)}=18.4, p<.001$), 부모 자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총점 모두에서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68)}=7.2, p<.01; F_{(1,68)}=14.5, p<.001; F_{(1,68)}=6.4, p<.05; F_{(1,68)}=18.6, p<.001$). 즉 자녀의 정서성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많았으며, 특히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지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하위 영역별로 부모 자신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표 3〉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지지	정서성 양육스트레스	상위 집단(n=37)	하위 집단(n=35)	전 체(N=72)
		M (SD)	M (SD)	M (SD)
상위 집단 (n=35)	부모 스트레스	2.63 (.73)	2.18 (.52)	2.34 (.63)
	역기능적 상호작용	2.16 (.65)	1.79 (.43)	1.92 (.54)
	까다로운 기질	2.52 (.53)	2.03 (.44)	2.20 (.52)
	양육스트레스 총점	2.43 (.50)	1.99 (.31)	2.15 (.44)
하위 집단 (n=37)	부모 스트레스	2.80 (.47)	2.75 (.58)	2.78 (.51)
	역기능적 상호작용	2.44 (.39)	2.38 (.43)	2.42 (.40)
	까다로운 기질	2.95 (.53)	2.20 (.46)	2.67 (.62)
	양육스트레스 총점	2.73 (.27)	2.43 (.35)	2.62 (.39)
전 체 (N=72)	부모 스트레스	2.74 (.58)	2.38 (.60)	2.56 (.61)
	역기능적 상호작용	2.34 (.51)	1.20 (.51)	2.16 (.54)
	까다로운 기질	2.79 (.56)	2.09 (.45)	2.43 (.61)
	양육스트레스 총점	2.62 (.39)	2.15 (.38)	2.38 (.45)

〈표 4〉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서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구 분	양육스트레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서성	부모 스트레스	1.042	1	1.042	3.308
	역기능적 상호작용	.801	1	.801	3.688
	까다로운 기질	6.343	1	6.343	26.733***
	양육스트레스 총점	2.231	1	2.231	18.393***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부모 스트레스	2.275	1	2.275	7.224**
	역기능적 상호작용	3.143	1	3.142	14.464***
	까다로운 기질	1.517	1	1.517	6.392*
	양육스트레스 총점	2.262	1	2.262	18.643***
정서성×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부모 스트레스	.673	1	.673	2.138
	역기능적 상호작용	.383	1	.383	1.765
	까다로운 기질	.285	1	.285	1.202
	양육스트레스 총점	.081	1	.081	.665
오 차	부모 스트레스	21.412	68	.315	
	역기능적 상호작용	14.770	68	.217	
	까다로운 기질	16.133	68	.237	
	양육스트레스 총점	8.250	68	.121	

*p<.05 **p<.01 ***p<.001

스트레스가 더 많았다.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만 3, 4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체로 온정/격려와 한계 설정

의 양육행동은 많이 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난 반면, 과보호/허용이나 거부/방임 행동은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온정/격려에서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해서($F_{(1,68)}=7.8, p<.01$), 남편의 지지가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를 양육할 때 온정과 격려를 더 많이 사용한 것

〈표 5〉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지지	양육행동	정서성		전체(N=72) M (SD)
		상위 집단(n=37) M (SD)	하위 집단(n=35) M (SD)	
상위 집단 (n=35)	온정/격려	4.16 (.34)	4.13 (.63)	4.14 (.54)
	한계 설정	3.87 (.75)	3.71 (.58)	3.76 (.64)
	과보호/허용	2.24 (.74)	2.21 (.72)	2.22 (.72)
	거부/방임	3.19 (.73)	2.78 (.66)	2.92 (.70)
하위 집단 (n=37)	한계 설정	3.79 (.68)	3.70 (.47)	3.76 (.60)
	온정/격려	3.23 (.82)	3.73 (.63)	3.41 (.78)
	과보호/허용	2.56 (.65)	2.05 (.45)	2.37 (.63)
	거부/방임	2.97 (.66)	2.94 (.51)	2.96 (.60)
전 체 (N=72)	온정/격려	3.93 (.60)	3.98 (.61)	3.95 (.60)
	한계 설정	3.46 (.84)	3.71 (.58)	3.59 (.73)
	과보호/허용	2.44 (.69)	2.15 (.64)	2.29 (.68)
	거부/방임	3.05 (.69)	2.83 (.61)	2.94 (.65)

〈표 6〉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양육행동의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구 분	양육행동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서성	온정/격려	.058	1	.058	.173
	한계 설정	.498	1	.498	1.012
	과보호/허용	1.188	1	1.188	2.695
	거부/방임	.828	1	.828	1.971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온정/격려	2.615	1	2.615	7.757**
	한계 설정	1.573	1	1.573	3.197
	과보호/허용	.108	1	.108	.245
	거부/방임	.018	1	.018	.043
정서성×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온정/격려	.013	1	.013	.038
	한계 설정	2.011	1	2.011	4.087*
	과보호/허용	.910	1	.910	2.064
	거부/방임	.597	1	.597	1.420
오 차	온정/격려	22.919	68	.337	
	한계 설정	33.457	68	.492	
	과보호/허용	29.970	68	.441	
	거부/방임	28.584	68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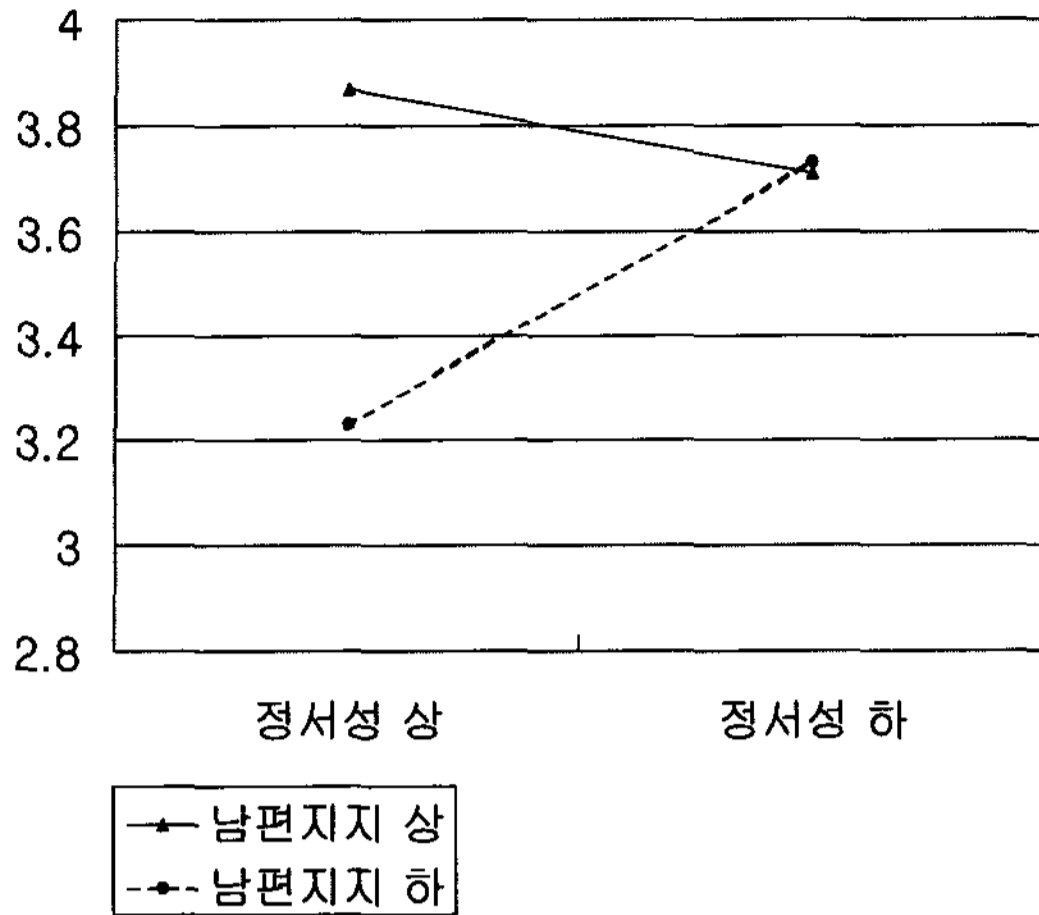
*p<.05 **p<.01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계 설정에서는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와 정서성 집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_{(1,68)}=4.1, p<.05$)가 나타났다(〈그림 1〉 참고). 즉 자녀의 정서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한계 설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정서성이 높은 경우 남편의 지지가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한계 설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교사가 평정한 만 3, 4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유아들은 교실에서 불안-위축된 행동과 분노-공격적 행동은 적게 보이고,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유아의 사



〈그림 1〉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한계 설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회적 유능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참고). 그 결과 긍정-친사회적 행동에서만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68)}=7.2, p<.01$). 즉 남편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가 남편의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보다 교실에서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교사가 평정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만 3, 4세 자녀의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실제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에서

〈표 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지지	정서성 사회적 유능성	상위 집단 (n=37)	하위 집단 (n=35)	전 체 (N=72)
		M (SD)	M (SD)	M (SD)
상위 집단 (n=35)	불안-위축된 행동	1.69 (.45)	1.77 (.59)	1.74 (.55)
	분노-공격적 행동	1.57 (.56)	1.64 (.61)	1.62 (.59)
	긍정-친사회적 행동	4.10 (.86)	4.28 (.84)	4.21 (.86)
하위 집단 (n=37)	불안-위축된 행동	1.95 (.75)	1.75 (.61)	1.88 (.70)
	분노-공격적 행동	1.90 (.77)	1.86 (.67)	1.88 (.72)
	긍정-친사회적 행동	3.52 (.72)	3.73 (1.02)	3.60 (.83)
전 체 (N=72)	불안-위축된 행동	1.86 (.66)	1.76 (.60)	1.81 (.63)
	분노-공격적 행동	1.57 (.56)	1.72 (.63)	1.75 (.66)
	긍정-친사회적 행동	3.73 (.83)	4.08 (.93)	3.91 (.90)

〈표 8〉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구분	사회적 유능성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정서성	불안 - 위축된 행동	.063	1	.063	.158
	분노 - 공격적 행동	.005	1	.005	.011
	긍정 - 친사회적 행동	.646	1	.646	.833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불안 - 위축된 행동	.258	1	.258	.648
	분노 - 공격적 행동	1.210	1	1.210	2.736
	긍정 - 친사회적 행동	5.248	1	5.248	7.177**
정서성×남편의 부모역할 지지	불안 - 위축된 행동	.324	1	.324	.811
	분노 - 공격적 행동	.047	1	.047	.107
	긍정 - 친사회적 행동	.005	1	.005	.007
오 차	불안 - 위축된 행동	27.128	68	.399	
	분노 - 공격적 행동	30.083	68	.442	
	긍정 - 친사회적 행동	49.726	68	.731	

**p<.01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정서성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보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그리고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가 부모역할 지지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보다 부모 자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모두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박성연 외 2인, 1996; 박응임, 1998; Abidin, 1990), 그리고 남편의 지지가 전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전춘애, 1996; Crnic, Greenberg, Regozin, Robinson, & Basham, 1983)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유아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행하는 자녀양육 실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그에 따라 양육행동으로 권위주의적 통제나 명령, 비난을 많이 사용하였다(박응임, 1998; 신숙재, 1997). 또한 Crnic과 Greenberg(1990)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낮고 통제적이며,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은 나아가 자녀의 반항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매일의 일상에서 스트레스 그 자체가 크지는 않더라도 유아가 짜증을 내거나 울며 떼를 쓰는 등 정서적 표현을 크게 할수록 자녀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특히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누적된 스트레스는 차후의 부모자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런 논지에서 본 연구 결과는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의 정도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2.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양육행동

본 연구 결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가 높은 어머니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보다 자녀를 양육할 때 온정과 격려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 설정에서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정서성이 낮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성이 높은 경우에 남편의 지지가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한계 설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남편의 지지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보다 온정과 격려를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한다는 결과는 남편의 지원을 많이 받은 어머니일수록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문혁준, 2001; Crnic *et al.*, 1983; Lewis *et al.*, 1988)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 중 어느 것보다 남편의 지원은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민감하게 만들어,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온정과 격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가진 어머니 집단에서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자녀양육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정서성이 높은 자녀가 반응하는 강도가 강하고 정서적으로 짜증을 많이 내는 등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더라도 남편의 지원이 높으면 어머니가 한계 설정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까다로운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자녀의 기질에 적합한 일관된 양육방법을 선택할 경우 자녀가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Belsky, Fish, & Isabella, 1991)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한계 설정의 주요 내용은 일관된 훈육과 관련되어 있고 어머니가 일관되게 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남편의 지지가 촉매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높게 표현하더라도 남편의 지지를 받은 어머니는 여유를 가지고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며 한계 설정을 사용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가 다루기 어려운 기질적 특성을 유아가 가졌더라도 남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행동을 통제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개인 특성 등 다른 변인을 포함한 후에도 남편의 지지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본 연구 결과, 유아의 정서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편의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가 남편의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보다 교실에서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교사가 평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이 성격 면에서 성숙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와의 사회적 통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과(Eisenberg *et al.*,

1997)와는 일관되나, 부정적 정서성이 남녀 유아 모두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권연희, 박경자, 2003; Rubin *et al.*, 1991).

유아의 정서성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정서성을 기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기질 요소 중 정서성 이외에 활동성과 사회성과도 유기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가정할 때, 정서성 하나만으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관련짓는데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유아의 기질을 전반적으로 관련지어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관여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모두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 자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유아의 자기조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또는 양육행동의 역할 등 중재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편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가 교실에서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남편의 지지를 받은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고, 온정과 격려, 한계 설정 등의 긍정적인 양육방법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유아가 부모와 온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 경우, 또래에게 좀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더 잘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박응임, 1998; Clark & Ladd, 2000)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유아에게 보여준 상호작용의 형태를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 적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를 보이게 된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설명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좀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서의 차이만을 살펴보았다. 이런 이유로 유아의 정서성이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지 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서의 차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정서성을 부모용 유아기질평정척도 중 정서성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측

정하였고, 정서성의 신뢰도 계수가 .65로 낮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정서성을 어머니의 보고에만 기초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어머니 외에 교사를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버지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지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양육참여를 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발달간의 관련성을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자녀의 정서성이 높은 경우에는 남편이 부모역할지지 정도에 따라 자녀양육행동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줄고 긍정적인 측면이 증가하는 등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을 경우 남편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양육실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 문혁준(2001). 부모의 효율적인 훈육 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2(1), 35-49.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응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원(1989).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영(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미(2006).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 양육스트레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30.
- Abidin, R. R.(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Fish, M., & Isabella, R. A.(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lark, K. E., & Ladd, G. W.(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ous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Crnic, K., & Greenberg, M.(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Greenberg, M., Ragozin, A., Robinson, M., & Basham, R.(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 Eisenberg, N., & Fabes, R. A.(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motion and social behavior*(Vol. 14, pp.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Maszk, P., & Losoya, S.(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 295-311.
- Goldberg, W. A.(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e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6, 531-556.
- LaFreniere, P. J., & Dumas, J. E.(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s 3 to 6 years: The short form(SCBE-30).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9-377.
- Lewis, J., Owen, M. T., & Cox, M. J.(1988).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II. Incorporation of the child into the family. *Family Process*, 27, 411-421.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Rubin, K. H., Hymel, S., Mills, R. S. L., & Rose-Krasnor, L.(1991). Conceptualizing different pathways to and from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In D. Cicchetti & S. Toth(Eds.), *The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Vol. 2):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pp. 91-122).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Unger, D. G., & Wandersman, L. P.(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

(2007년 6월 28일 접수, 2007년 7월 25일 채택)